

IPO: 로보티즈(108490)

Not rated

로봇과의 공존을 준비한다

기업개요

- 1999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서비스용 로봇의 구축 솔루션을 핵심 기술로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음
- 주요 사업부문은 솔루션(로봇 전용 액추에이터와 솔루션), 에듀테인먼트 로봇(교육용 로봇 교구, 엔터테인먼트용 로봇 키트), 로봇 플랫폼 등으로 구분됨
- 17년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솔루션 35.5%, 에듀테인먼트 로봇 45.8%, 로봇 플랫폼 18.7%

Stock Data

확정 공모가(원)	14,000
예상 시가총액(십억원)	157.5
공모 주식수(백만)	1.7
모집 총액(십억원)	23.8
공모 후 총 주식수(백만)	11.2
상장 예정일	10월 26일
주요주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46.9
	일반법인 9.1

개발자들을 사로잡은 모듈형 액추에이터

-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역할을 수행하는 장치로 적용 로봇의 용도에 따라 그 크기와 토크가 달라짐. 로보티즈는 소형 로봇과 정밀 로봇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액추에이터를 제조하고 있으며 중소형 공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동로봇 제조용 액추에이터 및 로봇 플랫폼도 개발 중
- 로보티즈 액추에이터의 차별점은 액추에이터를 구성하는 모터, 제어기, 통신장치, 기어, 드라이버 등을 모듈화한 것
- 모듈형태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면 로봇 설계시 모터, 제어기, 통신을 모두 별도로 구성, 배치하는 과정이 필요 없고 동시에 디자인 및 AS측면에서의 편의성도 향상시킬 수 있음
- 모듈형 액추에이터의 확장성과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을 경쟁력으로 로보티즈의 전문가용 액추에이터는 대학의 연구용을 비롯해 의료, 헬스케어, 애니매트로닉스(animatronics, 기계장치에 캐릭터 모형을 덧씌워 전기적 힘으로 구동하는 특수효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꾸준히 성장 중인 에듀테인먼트 부문

- 로봇 교구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사용자의 학습 및 조작 수준에 맞춰 개발되었고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매출 발생
- 코딩교육 의무화(19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및 AI기술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에듀테인먼트 부문의 꾸준한 실적 성장 예상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13.5	1.6	1.6	NM	NM	NM	NM	NM	NM	13.7	NM
2016A	14.8	1.4	0.8	95	NM	NM	NM	NM	NM	6.7	NM
2017A	17.9	1.4	1.8	197	107.3	NM	NM	NM	NM	7.3	NM

이나예

nylee@truefriend.com

서비스용 로봇 시장 확대의 수혜

- 향후, 서비스용 로봇 시장을 기반으로 B2B 부문이 뚜렷하게 성장할 것. 서비스용 로봇은 물류, 의료, 국방, 홍보, 가사,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전문 및 개인서비스용으로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로봇 제조기술 외에 로봇의 구동에 활용되는 카메라, 센서 등의 보조적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복지용, 협업용 로봇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서비스용 로봇 시장의 개화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
- 서비스용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조용 로봇과는 달리 배터리로 구동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경량화 되어야 하고 내구성 또한 좋아야 하며 복잡한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솔루션과의 연동이 용이해야 함
- 로보티즈는 이미 솔루션과 액추에이터를 동시에 제조 및 서비스하고 있음. 연구기관을 넘어서 디즈니, 아마존, 텐소 등 일반 기업에서의 채택이 늘고 있음
- 17년 말에는 LG전자가 로보티즈의 지분 10%(상장후 8.5%)를 취득했고 지난 9월엔 로봇용 자율주행모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 자율주행모듈의 구동부와 모터제어기 등의 하드웨어 개발을 담당할 예정. LG전자는 지금까지 CLOi라는 브랜드로 총 8종의 서비스용 로봇을 선보인 바 있으며 앞으로는 가정용, 공공·산업용, 산업용, 웨어러블 등 4개의 축으로 로봇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확정 공모가는 희망가액 상단을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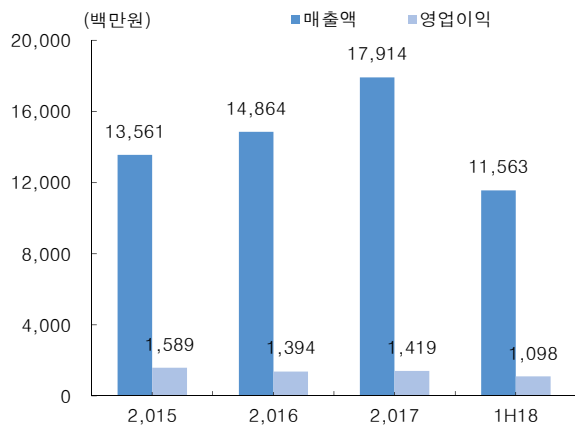
- 공모희망가액 밴드는 peer 그룹 평균 PER 24.9배에서 51.5~40.4% 할인한 9,200~11,300원으로 제시되었지만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돌파하며 14,000원으로 확정되었음
- 18년 가이던스는 매출액 250억원(+67% YoY), 영업이익 24억원(+94% YoY)이며 확정공모가 14,000원은 18F PER 63배, 19F PER 19배 수준
-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상장예정주식수(11,251,000주)의 20.7%에 해당하는 2,328,350주

[그림 1]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와 전문가용 및 교육용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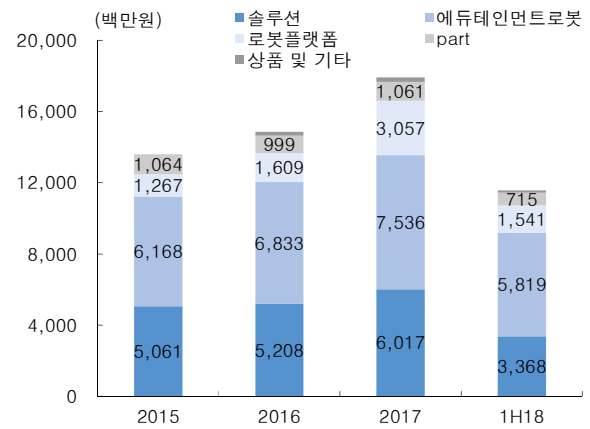
자료: 로보티즈

[그림 2] 연간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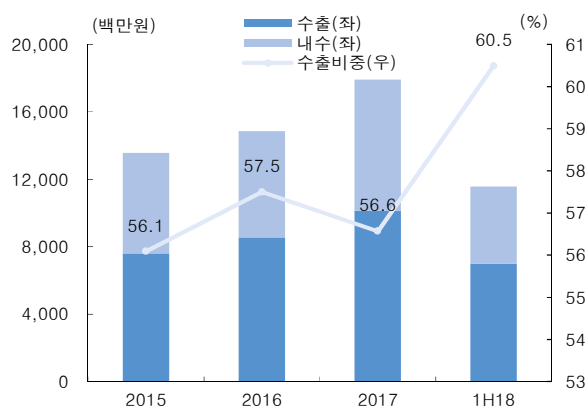
자료: 로보티즈,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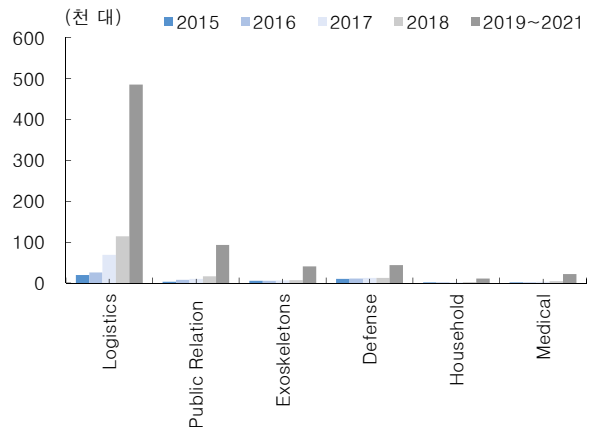
자료: 로보티즈,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수출비중 추이



자료: 로보티즈, 한국투자증권

[그림 5] 글로벌 서비스용 로봇 시장 전망



자료: IFR, 한국투자증권

〈표 1〉 보호예수 현황

구분	주식수	지분율(%)	보호예수 기간
최대주주 등	5,281,650	46.9	상장 후 1 년
우리사주	255,000	2.3	상장 후 1 년
일반법인(LG 전자 포함)	1,019,650	9.1	상장 후 1 년
기존 개인주주	1,276,900	11.4	상장 후 1 년
주관사 의무인수	51,000	0.5	상장 후 3 개월
벤처금융	1,038,450	9.2	상장 후 1 개월
합계	8,922,650	79.3	

자료: 로보티즈, 한국투자증권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내역

종목(코드번호)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대비
로보티즈(108490)	2018.10.25	NR	—	—	—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18년 10월 25일 현재 로보티즈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시장 지수 대비 추가등락 기준임

- 매 수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
- 중 립 : 시장 지수 대비 -15~15%p의 주가 등락 예상
- 비중축소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
-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

■ 투자등급 비율 (2018.9.30 기준)

매수	중립	비중축소(매도)
77.8%	22.2%	0.0%

※ 최근 1년간 공표한 유니버스 종목 기준

■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

- 비중확대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이 가져갈 것을 권함
- 중 립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비중축소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